

김대현 차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현장 찾아 우리 선수단 응원부터 아시아 장애인체육 교류까지

- 10. 20.~22. 우리 선수단 경기 응원, ‘아시아인의 밤’ 참석 및 지원단 본부 방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10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이하 아시안패러게임)’ 현장을 방문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선수단 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10. 20.~21. 육상·수영·휠체어농구 등 우리 선수단 출전 경기 응원,
아시아 장애인체육계 한자리에... ‘아시아인의 밤’ 개최

먼저, 김 차관은 아이치현 일원의 경기장을 찾아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 20일에는 육상 경기장, 21일에는 수영, 휠체어농구,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등,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일 저녁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개최하는 ‘아시아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국제스포츠 인사들을 환영한다. 이 행사는 아시안패러게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장애인체육계 인사들을 한자리에 초청하는 교류의 장이다.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sPC)와 비디에이치(BDH) 재단이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행사에는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아시아 각국 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 국제경기연맹,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국내외 150여 명이 참석한다. 김 차관은 아시아 각국 장애인체육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국 간 장애인체육 협력 기반을 다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비디에이치(BDH) 재단이 아시아 12개국의 장애인체육 발전을 지원하는 후원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장애인스포츠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장애인체육 발전을 이끄는 협력 국가로서의 역할을 넓혀 갈 계획이다.

10. 22. 분산 개최에 맞춘 ‘현장 밀착형’ 지원단 본부 방문, 운영 현황 점검

22일에는 나고야 현지에 마련된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단 본부를 방문해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인력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단 숙소를 선수촌과 17개 호텔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기존 대회처럼 중앙거점을 중심으로 선수들을 지원하는 방식 대신, 선수단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개 권역별로 의무실을 두고, 의무 인력이 숙소와 경기장을 찾아가 물리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종목별로 담당관 2명씩을 파견해 선수단 운영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다. 급식도 선수단 위치와 여건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김대현 차관은 “한계를 넘어선 우리 선수들의 도전 그 자체가 가장 큰 감동”이라며, “나고야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도록 정부도 선수단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	책임자	과장	홍덕호 (044-203-3181)
		담당자	사무관	최효선 (044-203-3185)

